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 2023. 4. 11.(화) 14:40, 정부서울청사 별관 -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수 특구 사업 전시부스를 둘러보았습니다.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할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우리 기업들입니다. 앞으로도 민간의 도전정신과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결합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가 시행 4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간 7차례에 걸쳐 지정된 32개 특구를 통해 투자유치 약 4조원, 고용창출 약 4천명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특화된 혁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구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보다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혁신적인 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지역, 정부가 협력해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개의 신규특구 지정안과 2건의 사업추가 안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강원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특구'를 신청했습니다. 한해 80만톤씩 버려지는 목재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며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전환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전남은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를 신청했습니다. 저렴하고 100% 재활용이 가능한 신소재인 HDPE로 배를 만들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은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도입하여 환자가 앱으로 한 번만 동의하면 진료와 동시에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전북은 기존 수소충전 용량을 2배 높인 '고압 탈부착 수소용기 실증사업'을 통해, 고정식 수소충전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건설기계, 선박 등의 수소 전환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찰스 다윈은 "강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변화에 대응하려는 기업의 혁신적 시도를 돕기 위해 규제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창구 중 하나입니다. 위원님

들께서는 규제자유특구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낌없이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